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고찰

지도교수 이 경 화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 미 혜

#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고찰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 미 혜

# 문미혜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권 순 용 인  
심사위원 황 해 익 인  
심사위원 이 경 화 인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고찰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 미 혜  
지도 교수 이 경 화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면접을 통해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제주도 전통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놀이는 어떠하였는가?

둘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기본생활 습관지도는 어떠하였는가?

셋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에 대한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은 어떠하였는가?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34명을 대상으로 유아놀이, 기본생활습관지도,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및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무당(심방)의 역할 유무에 대해 개별 준표준화 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유사한 응답내용끼리 묶어 요약한 후, 다중응답 빈도처리 및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놀이는 바쁜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 원활히 했던 것으로 적극적이며, 자립심이 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놀이 유형 및 놀이감은 쉽게 구하여 제작해서 만든 놀이감으로 자연 속에서 찾아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기본생활습관지도는 식사 지도 및 수면지도 모두 특정 대상자가 지도 한 것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에서는 육아과정에서의 심방의 역할이 중시되었으며, 각종 주술적 처방을 통해 일종의 심리적 위안을 받은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놀이는 제주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자립지향적 문화이다.

둘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기본 생활습관 지도는 특별히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보며 스스로 터득하는 독립적인 유아로서 가족의 일원인 공동체 지향적 문화이다.

셋째,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유아를 키우면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과 척박한 삶의 공간에 대한 극복을 초월적 존재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고자 했던 제주인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심리처방적 문화이다.

## <차 례>

국문초록 .....	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목적 .....	3
2. 연구 문제 .....	3
<b>II. 이론적 배경 .....</b>	<b>4</b>
1. 제주도 전통사회의 기반 .....	4
2. 제주도 전통사회의 아동관 .....	9
3.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	13
<b>III. 연구 방법 .....</b>	<b>23</b>
1. 조사 대상 .....	23
2. 조사 시기 및 조사 내용 .....	24
3. 자료 분석 .....	25
<b>IV. 연구 결과 .....</b>	<b>26</b>
1.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놀이 .....	26
2.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기본생활습관지도 .....	34
3. 제주도 전통사회의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	40
<b>V. 요약 및 결론 .....</b>	<b>47</b>
1. 요약 .....	47
2. 결론 .....	49
참고문헌 .....	52
부록 .....	55
Abstract .....	60

## <표 차례>

<표Ⅲ-1> 피면접자 현황 .....	24
<표Ⅲ-2> 면접 내용 및 분석틀 .....	25
<표Ⅳ-1> 구성 인원에 따른 놀이 분류 .....	27
<표Ⅳ-2> 놀이 대상 .....	28
<표Ⅳ-3> 놀이 방법의 유형 .....	30
<표Ⅳ-4> 놀이감의 유형 .....	33
<표Ⅳ-5> 식사 지도자 .....	35
<표Ⅳ-6> 식사 지도 내용 .....	37
<표Ⅳ-7> 수면 지도자 .....	38
<표Ⅳ-8> 수면 지도 내용 .....	39
<표Ⅳ-9> 민간신앙적 심리처방(관습) .....	43

## <그림 차례>

<그림Ⅱ-1> 제주인의 정신 .....	8
-----------------------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탐라국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마다 특성과 개성을 띠고 나타났다. 이는 여러 문화현상들을 관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맥락에서의 생활문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한 시기의 문화현상으로 외세에 의한 강점문화, 무역의 향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입된 본토와의 교류문화와 우연히 표류해 들어온 표류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탐라의 풍속, 신앙, 언어, 물질, 생산, 예능 등으로 나타나는 전통문화는 자생적인 생활문화에다 북방 또는 남방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문화들을 수용하면서, 본토와 다른 제주의 전통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몽고, 일본과 비슷한 풍습이 남아 있으며, 본토와는 다른 제주 특유의 풍속들이 많이 발견된다. 제주의 전통문화는 이러한 옛 문화유산을 선택하고 계승발전 시켜 온 제주인 특유의 생활양식이다(제주도교육청, 1996).

전통은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민족의 삶의 모습으로 그 민족 또는 지역 공동체의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제주지역의 여성의 역할과 가족·친족 조직형태 및 권력구조 등의 전통은 한국 전통사회의<sup>1)</sup> 삶의 양식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전통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제주도의 가족관계는 필연적으로 현실의 가족생활까지 영향을 미쳐 특유의 가족문화를 형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 특유의 전통적 가족문화는 제주인의 자녀관 및 유아교육 방식 등의 유아교육 문화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닐 것이라는 점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

1) 본 연구에서는 통칭하는 ‘한국 전통사회’란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지역의 전통사회를 말한다.



실상 제주도의 특이한 유아교육문화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그러한 특이성이나 구체적인 특성이 밝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으며, 단지 단편적인 몇몇 사실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육사, 교육철학 등 인접학문 분야에서 해당분야의 관심과 필요의 일부로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연구되는 정도로 그쳤다. 이 또한 문헌자료에 근거하였으므로, 전통사회의 실제생활에서 수집·발굴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조사자료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사회의 가정이 그 시대 그 사회의 특수성과 유아라는 유아의 연령시기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독특한 교육 철학과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유아를 교육하였음에도, 전통의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체계화한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처럼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의 추세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유아교육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 이에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이 단편적으로 연구되기도 하였으나,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에 도입된 현대의 유아교육을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 전통유아교육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자원 인사로서 노인세대는 사망 또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한국 전통유아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한 위기에 이르렀다.

이에 제주도 전통사회의<sup>2)</sup> 유아교육 또한 제주만의 특수성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발굴하여 재정립하며,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선인들의 삶의 자취를 더듬어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유아교육에 반영하는 일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유아기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제주도만의 독특

---

2) 본 연구에서의 제주도 전통사회라 함은 시기적으로는 4.3이전까지로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한 특성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연구의 범위를 특이한 독자성을 보이는, 유안진(1990)이 말하는 자발적 학습단계이며, 에릭슨의 8단계 이론에서 볼 때 자발성감 또는 죄책감단계에 속하는 유아 시기인 5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전통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제주에 현존하는 노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유아 놀이, 기본생활습관지도,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을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정체성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대상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제주지역의 전통 유아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발굴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놀이, 기본생활습관지도,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얻는 것으로,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의 특성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놀이는 어떠하였는가?

둘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기본생활 습관지도는 어떠하였는가?

셋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에 대한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은 어떠하였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제주도 전통사회의 기반

문화는 역사라는 시간과 풍토라는 공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주체에 의해 생성·전승되어 온 것이며, 전통문화는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재한다는 시간적 차원의 지속성과 특정의 지역에서 형성되고 전승되는 공간적 차원, 그러한 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체적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제주도의 원주민은 북방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여러 종족과 주변의 여러 도서 지방에서 들어온 종족들이 합해져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도에 들어온 여러 종족들은 외부와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절해고도인 이 섬의 동일한 자연환경의 조건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종족의 고유한 문화가 서로 동화·융합하여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역사는 북방대륙 계통을 주축으로 주변도서의 표류민이 혼합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북방의 육지부적인 요소와 남방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선사시대인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보면 함께 존재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해방 후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부로 도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도민의 사상적 혼란을 가져왔으며,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은 수만 명의 인명 피해와 엄청난 재난 피해를 냈다. 이 4·3사건은 제주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한을 심어주었고, 이 사건은 제주도의 현대사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김향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 2000). 이러한 영향으로 유아교육을 자리잡기가 매우 힘들었고, 곤경과 시련 및 수탈의 역사였으며 처절한 생존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열악한 환경적 조건을 극복해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사회로서 남녀를 막론하고 노동에 참여했으며,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이외에도 대부분의 밭일과 잠수 등의 일을 하는 등 노동량이 육지에 비해 상당히 많았고, 그 역할 또한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요구되었다(이경화, 2003).

제주도의 문화는 제주도라는 한정된 특수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이 지역 특유의 토양과 역사와 더불어 오랜 세월을 거쳐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며 웃고 울고 춤추며 노래부르는 지방어를 매개체로 하여 제주도의 고유한 신화·전설·민요를 비롯한 전통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방어가 육지부의 지방어와 다른 특징을 갖는 것과 같이 제주도 전통문화의 특징 또한 육지부의 전통문화와 구별되는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의 문화 형성은 삼다라는 특징으로 불리어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생성된 해양도서 전통적 고유문화이다. 전통적 고유문화의 이러한 외래적 문화의 요소도 오랜 기간 전승되는 동안 제주도민의 생활감정에 동화되어 다음 세대에 가서는 하나의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모습으로 정착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 문화의 특징이라면 여러 면에서 그 특징이 많지만 오랜 옛날부터 불러내려 온 민요를 보면 제주 도민의 소박한 생활과 감정이 얼마나 잘 녹아 흐르고 있는 가를 잘 알 수 있다. 제주도민의 생활에서 볼 때, 자연과의 투쟁에서, 역사적인 시련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응하고 순응하고 반항하면서 많은 것을 극복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담겨진 제주도민의 오랜 전통 속에서 길러진 삶의 슬기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 산업화되고 기계화되는 고도의 과학문명 사회 속에서 인간이 그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는 생활 위협에서 우리 겨레의 춤과 노래와 생활양식 등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우리 것을 사랑하자는 것이라 본다. 제주도 전통문화의 현황은 제주도민의 힘에 의하여 그 슬기가 쌓여 이루어지며, 이런 환경적 영향은 제주도 전통사회 유아교육의 생활 속에 뿌리깊이 들어와 유아로 하여금 끈질기며 그 지역 고유 전통성이 더욱 강하

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제주도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가족과 친족 문화가 형성되었다. 한국 전통사회의 가족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산남과 산북지역간 차이를 보이는 제주도의 가족관계는 필연적으로 현실의 가족생활까지 영향을 미쳐 특유의 가족문화를 형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 특유의 전통적 가족문화는 제주인의 양육관 및 양육방식 등의 유아문화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닐 것이라는 점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해촌의 경우에는 남녀간 성별 분업구조가 다른 지역과 상반된 양상을 띄며, 여성들이 바다에서 잠수활동과 밭에서 일하는 동안 남자는 집안일과 아기 보는 일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던가, 강인한 생활력을 지닌 제주 여성들이 아기를 아기구덕에 눕혀서 밭에 갖다 놓고 일을 하거나 바닷가에 갔다 놓고 잠수일을 하는가 하면 집에서 밭로 아기구덕을 흔들면서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기를 질빵으로 업고 일을 하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었음 등이 일부 보고되고 있다(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 2000).

또한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한국 전통사회와는 달리 남아선호 사상이 강력하지 않았던 데에는 제주의 환경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제주인의 대응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풀이된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대규모의 집약농업 형태가 아니라 밭작물 농업이 보다 가능했던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심지어 잠수가족이라 하더라도 농사에 필요한 여성의 몫을 모두 감당하면서 물질을 하는 이중의 역할이 상례화 되어 있음에 따라 가정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매우 컸다(김혜숙, 1998).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든 극복해 내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제주인 들에게는 남녀를 막론하고 기력이 남아 있는 한 노동에 의지해야만 했었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여성의 역할도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에 여성이 역할이 많은 영향을 차지했고, 가족 모두 유아에게 본보기가 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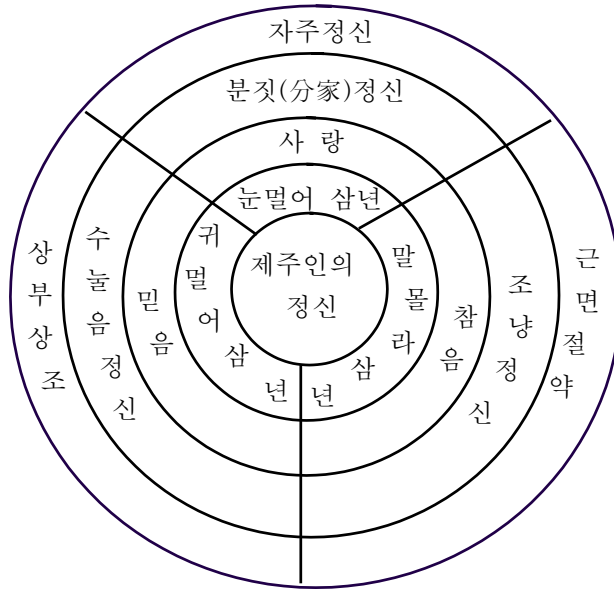
한국 전통사회는 인간을 태중에서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태교사상을 발전시

켰을 정도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사회였다. 한국 전통사회의 가정에서는 그 시대, 그 사회의 특수성과 유아기라는 연령시기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독특한 교육철학과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교육하였음이 실제 생활에서 수집·발굴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조사자료로서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에 대해 몇 가지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체계화한 유안진의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사회의 특징을 가부장적 장점으로 한 가족구조와 가족질서 및 가부장권계승 등을 내세운 특징적 가족제도가 확대된 정치체제인 아시아적 봉건사회로, 경제의 핵심을 농업으로 보고 농업의 노동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다산과 다남의 가치가 증대된 농업경제사회로, 그리고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구별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 유교의 이념으로 삼강오륜의 윤리강령을 중시하였던 유교윤리관 사회라는데 전제를 두고 있다(이경화, 2003).

제주도의 전통 문화에 있어서도 역사적인면과 환경적인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삼다·삼무의 고향, 도적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이상향을 건설한 제주도민 특유의 삶의 슬기의 일면인 것이다. 환경극복의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의 자주자립, 상부상조, 근검절약의 정신으로까지 성장·발전한 전통성이 이룩된 것이다.

이러한 제주인의 정신은 제주 섬 주민의 생활에서 싹튼 슬기가 성장 발전하고 오늘의 제주도민의 정신, 곧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보아 고립된 섬나라로서 외부 세계 내지 이질 문화와 접촉이 불가피했고, 제주도 전통사회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현대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기본생활습관이라는 덕목 안에 부분적인 내용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신을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그림Ⅱ-1>과 같다.



<그림 II-1> 제주인의 정신(진성기, 1993)

<그림 II-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어둡고, 귀먹고, 말 모르고서 삼 년씩이나 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조건 사랑하라, 믿어라, 참아라 는 뜻이요, 이것은 또한 전통적 분깃과 수놓음 그리고 조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눈어둡고, 귀먹고, 말 모름의 교훈은 분깃 정신, 수놓음 정신, 조냥 정신 등으로 발전한 것이요 또한 이 세 가지 정신은 마침내 자주정신, 상부정신, 근면절약의 제주인의 정신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진성기, 1993).

특히, 오늘날 산업화되고 기계화되는 고도의 과학문명 사회 속에서 인간이 그 기계화하고 비인간화하는 생활 위협에서 우리 겨레의 춤과 노래와 생활양식 등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우리 것을 사랑하자는 것이라 본다. 끝으로 제주도 전통문화의 현황은 제주도민의 힘에 의하여 그 슬기가 쌓여 이루어지며, 도민의 생활 속에 뿌리깊은 문화일수록 끈질기며 그 지역 고유 전통성이 더욱 강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전통적 유아교육 관련 민속 또는 풍속의 조직이며, 이러한 민속이나

풍속은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공유되어 온 전수된 관습과 습관이라는 점과 유아 전통이 그 전승 방식에 있어 일상적 행동 양식에서부터 특수한 상황에서의 행동양식까지 포함하는 기술전승으로서 관찰과 모방에 의해 전승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지역의 전통유아교육은 육지 중심의 전통사회의 유아교육과는 독특한 관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에 있어 역사적 자료가 뒷받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역사적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빈약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제주지역 전통유아에 관한 실천적 조사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및 발굴 작업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러한 실천적 조사를 통해 제주도만의 독특한 특성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 2. 제주도 전통사회의 아동관

한국 전통사회의 아동관은 한국 전통가족사회의 특징에 뿌리하고 있다. 한국 전통사회의 특징이 수세대의 다수가족수인 대가족이었고, 확장된 가족형태를 보일수록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통가족의 모든 기능 중 최우선의 기능은 다수가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 합리적 방법이 곧 아동의 출산과 양육이었다. 더욱이 다수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경제체제에서 여성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남아의 출산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었다.

태교와 한국식 나이계산법은 전통사회 아동관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이는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받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태중 10개월은 실로 엄숙한 인간생명의 형성이며 창조와 진화의 기간임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 전통사회가 신봉했던 가족윤리 중 성인과 아동의 관계를 규정된 것이 곧 장유유서인데, 연소자에 대한 연장자의 자애와 연장자에 대한 연소자의 공경의 관계였다. 자애와 공경의 바탕은 결국 사랑이었으므로, 장유유서는



어른이 아동을 사랑하는 도리와 아동이 어른을 사랑하는 도리였다.

이러한 장유유서의 윤리가 본질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못하게, 모든 일에서 연령의 높낮이로써 선후를 따지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장유유서의 본의와는 다르게 아동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는 폐단도 있었다. 아동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대우는 소홀했던 것이 실제였다.

그러나 전래동화에서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어 사라지지 않고 살아 남아서 전해졌던 사회에서 그 당시 그 사회인들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반영한다.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통사회의 동화에서 아동을 중심인물로 등장시킨 동화가 많다. 이런 동화일수록 아동의 슬기를 존중하여 어른이 아이의 생각에 추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주제의 전래동화는 한국 전통사회의 아동관이 아동을 무시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동의 지혜를 존중했던 전통사회의 아동관은 이런 자료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 즉 전통사회는 아동의 슬기로운 존재, 성인의 무례함이나 우매함을 깨우칠만한 존재이며, 성인과 동등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장에서 언급한 제주도 전통사회 특이한 가족제도 및 생활, 문화적 특성 속에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아동관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사회에서의 아동은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존재였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한국 전통사회와는 달리 남아선호 사상이 강력하지 않았던 데에는 제주의 환경적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제주도민의 대응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풀이된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대규모의 집약농업 형태가 아니라 밭작물 농업이 보다 가능했던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이 중요하게 요구되었고, 심지어 잠수가족이라 하더라도 농사에 필요한 여성의 몫을 모두 감당하면서 물질을 하는 이중의 역할이 상례화되어 있음에 따라 가정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매우 컸다(김혜숙, 1998).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든 극복해 내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제주인들에게

는 남녀를 막론하고 기력이 남아있는 한 노동에 의지해야만 했었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여성의 역할도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즉,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증대되고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게 작용할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마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누구의 손에 의해 보호받기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제주도 전통사회 생활 특징에 의해 혼자 독립적으로 기본적인 의, 식, 주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여 이시기의 유아들은 독립심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주도 전통사회에서의 아동은 노동력을 지닌 생산적 존재였다.

아기구덕에서 보면 제주도 전통사회의 아동관이 잘 나타나 있다. 모유에 의존하는 시기에는 주로 양육의 책임과 역할은 어머니에게로 집중되어진다. 모유 의존의 시기를 벗어나 첫돌이 지나게 되면,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모가 대리모로서 어머니를 대신하였는데, 이렇게 조모가 손자녀 양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시기의 유아를 유안진(1990)은 '무릎학교단계'라는 용어로 표현한 바 있다. 조모는 이 시기 유아들의 이유와 배변훈련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놀이교사이자 때로는 이유와 배변훈련으로 인한 부적응, 갈등의 심리치료의원으로서 육아경험을 되살려 손자녀들을 돌봐주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조모역할과는 달리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대리모로서의 조모 역할이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는데, 육아를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는 한편, 가족 구성원의 육아에 대한 참여도 공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 전통사회의 육아 담당자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제주도의 가족제도 및 관행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제주도 전통가족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철저한 분가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부자의 가족이 각각 실질적인 핵가족을 형성하여 안거리와 밖거리에 별거함으로써 핵가족의 장점과 직계가족의 장점을 절충·보완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가족제도는 제주도의 각박한 풍토조건에서 우러난 자립, 근면의식의 소산으로(김혜숙, 1998), 의식주와 함께 육아부담도 마찬가지로

로 조모에게 의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 전통 가족의 관행이란 요소와 더불어 제주사회에서의 여성이 지니고 있는 노동의 가치 또한 조모에 대한 낮은 육아의존성과 관련되어진다. 제주의 여성들 즉, 어머니나 할머니는 밭농사에 참여하면서 노동량이 많았고 해촌의 경우에는 해녀작업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의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즉 육아의 문제를 윗세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과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기구덕’이라는 제주 고유의 육아용품에서도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아기구덕은 아기를 재우거나 놀려주기 위하여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장방형의 바구니로 일종의 요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기구덕 안쪽 반쯤 높이로 새끼줄로 엮어서 보리짚 따위를 깔로 그 위에 아기를 눕혀서 좌우로 흔들면서 아기를 재웠는데, 아기가 잠에서 깬 다음에도 이 구덕에 눕힌 채 흔들려 주면서 아이를 돌보았다.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쪽 수족으로는 계속 일을 하기 위해 나머지 손이나 발을 이용하여 아기구덕을 흔들었으며, 어머니가 돌보지 못할 때는 집안에 있는 손윗 형제 자매가 놀이 삼아 또는 잠수일을 나간 어머니나 할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구덕을 흔들며 아이를 돌보는 일에 참여를 하였다.

이러한 아기구덕은 그 형태나 조작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아기를 돌볼 수 있게끔 도와준 매개체로 제주도 전통사회의 터울이 없는 윗형들 또한 아기육아에 있어 대리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주도 전통사회에서의 아동은 초월적 힘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였다.

바람이 잦고 비가 많은 기후조건 속에서 어로행위가 중요한 생업이었던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초월적 존재에게 의존하는 무속적인 민간신앙이 생활 전반의 중요한 사고체계로 작용하였으며, 산육 과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삼신은 출산과 신생아의 건강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어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삼승할망을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보살피는 상징적 신의 존재로 인식하는 동시에 실제 산육과정에 참여하여 조력했던 후덕한 할머니로써 구체화시킨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삼승할망으로 불리는 이는 산모의 순산을 빌어주고 아이의 건강을 기원해주는 의례를 행사하였으며, 제주도 부녀자들의 심리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아이가 많이 놀랐을 때는 낫들이는 할망이, 심각한 질병을 앓을 때는 의료적 목적으로 굿을 하는 심방이 굿을 함으로써 제주도 전통사회의 민간신앙적 요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월적 힘의 매개자로서 삼승할망, 낫들이는 할망, 심방 등에 의존하는 한편, 자립적 극복 의지로서의 주술적 처방도 많이 나타났다.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재난을 피하려는 습속은 크게 순산과정과 질병예방 및 치료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사회를 살던 주체들의 능동적 대처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 3.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이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침에 있어서, 그 사회가 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생활태도를 갖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비 형식적으로 행하는 교육이며, 특히 유아교육은 태교와 양육을 비롯한 훈육과 지육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물질만능주의의 소비성향증대로 인하여 전통예절과 효친사상 및 근검 절약정신이 붕괴될 위험성이 큰 정신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강조되는 전통사상과 고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가정에서의 유아교육은 유교를

주도적 이념으로 삼았던 전통사회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었던 부분이라 하겠다.

제주도 초기의 유치원은 190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1957년 이후 교회 부설 유치원이 생기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필요성이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알맞은 교육 환경 속에서 즐겁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적인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기르고,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게 하고, 자신의 주변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의 느낌과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기능을 가지게 하며,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우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가지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제주시, 1988).

## 1) 놀이

한국 전통사회의 5~7세경의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으로 끌려나가 또래끼리 어울리는 골목유치원을 형성하였고, 무릎단계의 유아놀이가 보다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놀이에 장난감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민첩한 신체활동이 동반되었고 언어에 의한 동화, 동요, 수수께끼 등이 유아 놀이로 등장하였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성 차에 따른 관심의 차이가 나타나 놀이와 장소가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인생 전 과정에 걸쳐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죽마지우가 탄생하였고, 인생후기에 죽마고우라는 혈연 이상으로 밀착된 우정관계로 나타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유안진, 1990).

놀이 정의는 학자의 학설에 따라 변모해 왔고, 유아의 아름다움이 중요시되지 못했던 시기에는 놀이는 무익하고 유해성을 지닌 것으로, 유아기가 전 생애에 기초가 된다는 학설로 발전되면서 놀이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놀이를 통

해 유아의 성장 요구, 본능적인 충동이 충족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놀이란 동화와 조절의 지적 발달로 보았고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고, 선대의 문화를 학습하였다. 놀이는 유아의 무력함을 보상시켜주는 보상적 역할로서 중요하였고, 현대에 이르러 놀이는 아동에게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생활 자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어 왔고 놀이발달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안진은 자발적 학습단계의 유아 놀이의 특징은 전 단계나 다음 단계에 비해 매우 풍요롭고 다채로운 놀이 문화의 창조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첫째, 송아지 놀이에서 강아지 놀이로
- 둘째, 언어 및 유머와 리듬감각의 발달을 촉진시킨 놀이로
- 셋째, 발달과업 및 버릇교정의 효과로
- 넷째, 단순규칙에서 복잡한 놀이규칙으로
- 다섯째, 도구 없는 놀이에서 도구 있는 놀이로
- 여섯째, 놀이 장소와 계절 및 시간에 적응한 놀이로
- 일곱째, 전통 생활 문화의 교육방법으로서 놀이로
- 여덟째, 연합놀이에서 협동놀이로
- 아홉째, 전인 발달에 공헌한 놀이로
- 열번째, 공찰적 문화로서 놀이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적 의의는 유아의 자발적 학습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아들이 저절로 모여 골목유치원에서 그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여서 서로를 가르치게 되고 배우는 방법이 최선임을 알게 하였다.

놀이는 유아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 경쟁, 합의, 역할과 분담 이런 과정을 통해 전인교육에 필요한 전인적 발달을 돕는 놀이가 교육적 가치가 크게 작용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편이 협동하여 자기들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상대를 방어하는 협동심을 기르고, 영역(땅)을 탈취하고 또는 소유하는 소유의식이 강한 놀이들이 많았다. 이는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되어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고정되고 지

위를 부여받아서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사회를 익히며 생활의 껍박함에서 온 소유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보상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놀이가 많다. 즉 놀이를 해서 점수를 얻고 이긴다거나, 한 사람의 놀이자가 술래 모르게 나타나 아웃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웅 기대 심리, 또한 동, 식물을 채취하거나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 등에서도 현실적인 유상심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민속놀이가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팽이치기, 연날리기는 다소 행해지기는 하나 바람의 영향으로 제약이 있고, 널뛰기, 장기, 고누와 같은 놀이도 흔하지는 않다. 이는 과거의 성인들이 악조건의 환경을 살아가느라 힘겨웠기 때문에 민속놀이를 충분히 즐기지 못해 그러한 놀이가 전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유아 놀이에는 규칙이 엄한 편이다.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켜야만, 놀이가 행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놀이 진행이 어렵게 된다. 놀이 과정 중에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아웃이 되는 타당하고 공평한 질서의식의 반영인 것이다(제주도교육청, 1996).

제주 민속놀이에 나타난 유아놀이를 보면 즐겁고 신나며 아름다운 놀이의 동작은 춤이나 연극으로, 음악은 노래로 표현된다. 이러한 놀이는 놀이의 주체도 흥겨울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신나는 공감을 갖게 되어 일체감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놀이의 기원은 원시공동체 사회로 소급되며 점차 농경이나 어로 등 마을의 협업 또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수행을 통해서 집단의 결속을 이루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진성기(1996)는 '남국의 민속놀이'에서 성인 놀이와 함께 놀이의 민속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수집정리를 하면서 놀이의 특성과 방법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유아놀이의 유형을 가매 타기, 곤각시, 물탈락, 계잡기, 끈즈놀이, 도래기치기, 뚜럼놀이, 물싸움고장놀이, 뽕을락, 팽이치기, 숨비질놀이 등의 놀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일찍 이루어져서 비교적 전통적인 유아놀이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좌혜경(1993)은 '제주 전승동요연구'에서 유아를 위한 동요를 수집하고 연구

하면서 유희의 진행을 돕거나 박자를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불려지는 유희요와 그에 따른 제주의 전승 놀이를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동요와 관련된 놀이를 정리함으로써 제주전통놀이의 유아기 아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유아놀이는 언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체 발생적이고 어떠한 의도적인 목적보다는 무의도적인 창작물이지만, 여기에는 유아의 행동과 삶이 놀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전통사회 유아들은 주로 누구와 놀았는지, 유아들이 했던 놀이방법의 유형은 어떠했으며, 놀이감은 무엇이었는지를 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2) 기본생활습관지도

제주도 전통사회 유아 기본생활습관은 전설, 신화, 속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설은 ‘향토사 이야기’ 라는 점에서 신화나 민담 같은 구비문학과 다르다. 지역성과 역사성은 전설의 성격을 결정짓는 두 개의 커다란 조건이 된다. 지역성이란 광범위하게 한 지방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물 등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것들은 각기 특출한 데가 있어서 그 지방의 자랑이나 또는 특색으로 내세울 만한 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전설은 한 지방의 특색 있는 ‘향토지리지’의 성격을 띠며, 그 중에서도 인문지리지적 특색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전설은 한 고을의 내력이나, 자연 환경의 특색, 인물의 뛰어난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만큼 거기에는 그 지방 사람들의 자존심과 애향심이 엉키게 되고, 나아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구심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설은 한 지방 주민들의 향토에 대한 사랑과 정열을 포함하고 있다.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특이한 자연 환경을 지닌 우리 제주도는 예부터 어려운 생활을 꾸려 왔다. 특히, 화산으로 이루어진 거칠고 척박한 땅, 변덕스러운 기후는 농사에 적합지 않아, 일은 부지런히 하면서도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하였다. 또, 바다에 나갔다가 죽는 일도 많았고, 잦은 해적의 출몰로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도민들은 당이나 절을 세워 의지했고, 일의 고됨을 잊기 위해 노래(민요)를 부르는 한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눔으로써 위안을 삼았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전설의 내용도 어려운 삶을 이겨내려는 지혜를 담게 되었다. 이런 지혜 속에는 유아들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전설들이 생겨났다. 이는 옛날 전통사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내용으로 유아들에게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이런 전설을 소개하면 불효 막심한 자신을 한탄하던 그는 바닷가로 가서 울다가 돌이 되었다는 ‘오백장군’ 이야기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과 효를 다하는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벼락구렁’ 이야기, 효를 다하는 아들의 마음을 교훈으로 남기는 ‘홍효자’ 이야기는 제주도 전통사회의 기본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지도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속담 속의 이야기에서 기본생활을 형성하는데 필요했던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다.

신화는 이 세상에서 처음 일어났던 일로 역사상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인간·우주·만물의 성립과 운명을 신격으로 승화시키고, 그 근원을 자연적·인문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그 시원을 밝힌 것을 말한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신화는 신에 관한 이야기라 했는데, 그 신들은 신화 속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 또는 그 질서의 형성 등을 설명한다. 즉 인간이 이 세상에 살게 된 태초의 사실을 신을 등장시켜 설명함으로써 이야기 자체가 진실하고, 신성한 것임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것은 심방이 굿을 할 때 제단 앞에서 신들을 향하여 노래부르는 것인데 그 노랫말을 본풀이라고 한다. 이 본풀이는 대개 신이 출생한 후 어떤 신이 되어 모셔지게 되었는가 하는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심방이 굿을 하면서 노래로 부른다고 하는 면에서는 무가이고, 그 내용이 서사적이며,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면에서는 설화이고 또 그

시적 운율이나 서사적 구조를 문학적 측면에서 보는 경우는 서사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본풀이는 설명한 바와 같이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 점, 반드시 전부가 태초적인 설명 설화는 아니지만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의 기원, 또는 그 질서 형성의 설명인 점, 신성시하는 이야기인 점등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신화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모든 마을의 것이 모두 긴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마을신에는 그 신의 조상이 누구누구인가를 밝히는 계보만이 이야기되고, 어떤 마을신에게 계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하는 직능, 그리고 언제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제일 등의 유래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어느 마을신에는 신의 출생에서부터 마을신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제일은 언제인가 하는 제사 받을 때까지의 내력을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

신화의 내용을 보면 선, 악의 갈등을 선의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로서 승리한 선자가 신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악인, 악신, 악행은 일시기세를 피우나 끝내는 선인, 선심, 선행, 선신에게 굴복 당하고, 무서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가문장’ 이야기는 효행을 권장하는 것이 이야기 속에 보인다. 신에 관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의 표현이다. 세계는 신에 의해 만들어 지고 신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으며 선을 행하고, 선인, 선심, 선행하였다. 이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과서나 다름없는 이야기 속의 가르침이었다.

속담은 선인들의 실생활을 통해 체득한 생활 훈으로서 삶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진 말의 보배이다. 특히 제주도의 속담인 경우는 육지부와 다른 특이한 토속성이 돋보인다. 또한 옛 분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상이 반영은 단순히 제주 문화의 뿌리와 접맥된 향토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의 습속과 전통의식이 서로 엉켜진 언어유산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고, 속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은 교시적 일깨움의 기능까지 한다. 널리 통용되는 속담일수록 충곡을 찌르는 깨우침의 묘미가 담겨져 있다. 생활 훈으로써 속담을 보면, 골계를 촉발시키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 삶의 허와 실을 꼬집어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 어떤 형태로 드러나든, 일깨움이 약한 속담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교훈은 속담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요

소가 아닐 수 없다.

효에 대한 교훈을 주는 “아방 공은 천년이민 어명 공은 만년이다” (아버지 공은 천년이민 어머니 공은 만년이다), “어명 생각은 천년을 가도 못 잊곡 만년이 가도 못 잊나” (어머니 생각은 천년이 가도 못 잊고, 만년이 가도 못 잊는다), “애기가 좋아(안) 소즈(저)가 아니곡, 부모가 좋아(안) 소존(전)다” (자식이 좋아서 효자가 아니고, 부모가 좋아서 효자이다), “소존 부모 입에서 난다” (효자는 부모 입에서 난다), “우 존 소존 셔도 알존 소존 엇다” (위 좋은 효자는 있어도 아래 좋은 효자는 없다)는 속담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의 공은 한이 없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교훈이 담겨있다.

형제우애가 교훈으로 남은 “아시로 나느니 성 좃으로 남만도 못한다” (아우로 낳느니 형 좃으로 낳는 것만 못하다)로, 옛날은 순위 사함을 위하는 장유유서가 인간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덕목이다. 형제간에도 동생인 아우는 형을 받들어서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는 말처럼 처음 기본 습관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아이 버릇 좃버릇 내우기로 간다” (아이버릇 좃 버릇들이기로 간다), “손버릇과 입버릇은 내우기로 간다” (손버릇과 입버릇은 들이기에 달린다), “입버릇, 몸 버릇” (입 버릇 몸 버릇)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버릇을 가지고 있다. 한데 그 버릇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가 자라는 과정에서 들여진 습관에 의해 좌우한다. 이는 어린 시절 길들여진 버릇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바른 언행에 대한 속담으로는 “아인 어른안티 뱀곡, 어른은 아이안티 뱀나” (아이는 어른에게 배우고, 어른은 아이에게 배운다), “어룬도 아이안티 뱀나” (어른도 아이에게 배운다)는 사람은 늙도록 배워도 다 못 배우고 죽는다고 했듯이, 평생 동안 배우면서 살아간다. 거기에는 연륜의 차이가 없다. 나이가 많고 경륜을 쌓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고, 반대로 윗사람이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한테 배울 수가 있다. 그것은 꼭 학문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언행도 그렇다. 어른이라고 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언행

을 통해서도 하고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고재환, 2002).

위에서 언급한 전설, 신화, 속담 속에 숨어있어 습관처럼 와 닿는 이야기들,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 생활사가 모두 기본생활습관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제주도 전통사회 민간신앙에 나타난 유아교육을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차연적인 존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여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의 삶으로, 곤궁했던 제주도에서는 마을마다 신당을 마련하고, 거기에 그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을 모시는 등 각종 민간신앙적 무속이 성행하였다.

무속이란 심방을 둘러싼 종교민속으로, 제주도 민간에서는 이러한 민간신앙이 타 지역에 비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무속에 대한 신앙도는 생활전반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사회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으로, 아이 키우기와 관련한 심방의 역할과 여러 가지 주술적 처방들로부터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 민간신앙에 나타난 유아교육을 보면, 삼승할망의 역할에 잘 나타나 있다. 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징되어 왔다(이경화, 2003). 또는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거나 넘어져서 놀랐을 때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잠을 잘 자지 않거나 아플 때, 할망이 기거하는 할망당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빌어주는 등의 유아들을 심리적으로 안정하게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무를 심방이라 부르는데, 그 기능은 주로 굿을 하는 것으로, 다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였다. 즉, 신과 인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인간의 바라는 것을 신에게 전하고,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유리하게 돌려놓는 의례 행위를 하고, 굿을 해나가는 도중에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아내거나 신

령 뜻을 전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는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믿음을 주었고, 유아들을 정성스럽게 키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은 그 시대의 생활상에 잘 나타나 있듯이 직접적인 교육형태는 아니었지만 유아를 키우는데 있어, 부모들이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음, 즉 아이들이 건강과 지혜가 항상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전통 유아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발굴을 위해 노인대상 면접의 현지조사를 일차적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 관련 문헌조사를 보완적으로 병행하였다. 면접과정 및 자료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특유의 전통문화를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들은 해방 이전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영유아기를 보냈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134명으로,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4.5명(남아 2.2명, 여아 2.3명)이다. 2개시와 2개군의 동·읍 단위로 면접대상자를 무선표집하여 개별적으로 준 표준화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피 면접자들의 현 거주지, 혼인전 주거주지(고향), 연령 대, 학력에 따라 그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Ⅲ-1> 피면접자 현황

구 분		사 례 수	백 분 율
현 거주지	제주시	38	28.4
	서귀포시	55	41.0
	북제주군	17	12.7
	남제주군	24	17.9
혼인전 주거주지	제주시	18	13.4
	서귀포시	34	25.4
	북제주군	44	32.8
	남제주군	38	28.4
연령대	만 60-65세	62	46.3
	만 66-70세	31	23.1
	만 71-75세	26	19.4
	만 76세 이상	15	11.2
학 력	무학	50	37.3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60	44.8
	중학교 중퇴 및 졸업	16	12.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5	3.7
	전문대 중퇴 이상	3	2.2
전 체		134	100.0

## 2.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조사시기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되었으며, 면접자는 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14명(평균 연령 35.9세, 평균 교직경력 13.8년)으로, 면접에 앞서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취지, 면접내용과 면접 및 기록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크게 유아놀이, 기본생활습관지도,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및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무당(심방)의 역할 유무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지며 그 세부적인 면접 질문의 내용은 다음 <표Ⅲ-2>와 같다.

<표Ⅲ-2> 조사 내용 및 분석틀

영역	내용	구체적 내용
놀이	놀이대상	· 유아는 주로 누구와 놀이했느냐?
	놀이방법	· 유아들이 했던 놀이 방법의 유형은 어떠한가?
	놀이감	· 유아들의 놀이감이 무엇이었느냐?
기본생활습관	식사지도	· 기본생활습관 식사지도는 주로 누가 하였는가? ·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식사지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수면지도	· 기본생활습관 수면지도는 주로 누가 하였는가? ·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수면지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심리처방적 관습(비방)	· 심리처방적 관습(비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심방의 역할 유무	· 유아 키우기와 심방의 역할 유무는 어떠한가?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문화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일차적 자료와 함께 유안진(1990), 이경화(2003), 제주도교육청(1996), 진성기(1993)등의 연구를 보완자료로서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제주도 전통사회 유아교육 자료는 유사한 응답내용끼리 묶어 요약한 후, 다중응답 빈도처리 및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표Ⅲ-2>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내용분석 하였다.



## IV. 연구 결과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에 대한 면접결과를 유안진(1990)이 말하는 자발적 학습단계 부분(다섯살~일곱살)을 놀이, 기본생활습관지도,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놀이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놀이는 아동의 삶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인의 삶 혹은 그 문화의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 즉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문화 형태이다. 놀이를 추적함으로써 그 구조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계층의 문화 형태가 보다 높은 예술 형태로의 접근과 그 해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놀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놀이 대상, 놀이 방법, 놀이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놀이 대상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같은 시기의 아동이 자연스럽게 모여 형성된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넓고 긴 골목을 이용하여 놀았다고 하여 골목유치원이라는 말이 생겼다. 골목유치원에 있는 놀이들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리더가 없는 연합 놀이를 즐겼지만 만 7세에 가까워지며 연상 아동이 리더가 되어 지휘하는 협동 놀이가 나타난다.

어른이 중재자, 판단자가 되어 훈계도 해 주었지만 놀이 시범도 보여지고, 노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놀이들은 구성 인원이 조직과 규모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 될 수도 있다. 혼자서 가능한 단독 놀이, 둘이서만 가능한 짝 놀이,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집단 놀이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도 어머니 팔아 친구 사귀는 양면적 삶을 학습하면서 또래끼리의 놀이를 즐겼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응답한 결과를 구성인원, 조직과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표IV-1>과 같다.

<표IV-1> 구성인원에 따른 놀이 분류

단독놀이	짝놀이 (소그룹놀이)	집단놀이 (대그룹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흙놀이 물놀이 연날리기 썰매타기 곤각시 공기놀이 돌장난	혼다리 인다리 고구마 수박서리 소꿉놀이 총싸움 고무줄놀이 자치기 줄넘기 뚜림놀이 막대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공놀이 땅따먹기 실뜨기	물탈락 술래잡기 숨바꼭질 달리기 병정놀이 옷놀이

<표IV-1>에서 알 수 있듯이 놀이 종류는 다양했고 유아들이 저절로 모여서 구성인원, 조직과 규모 따라 유아 상호간의 놀이를 학습했고, 더러 연상의 아동이나 성인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주로 또래끼리 자연스럽게 놀이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유아는 주로 누구와 놀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피면접자의 반응결과는 특정 대상이 없었음, 동네 또래, 가족, 형제, 자매 등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 전통사회 유아놀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IV-2>와 같다.

<표IV-2> 놀이 대상

구분	사례수	백분율
동네또래	33	24.6
가족	2	1.5
형제	17	12.7
자매	10	7.5
특정대상이 없었음	72	53.7
계	134	100.0

위의 <표IV-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시기의 유아 놀이 대상은 특정대상이 없이 놀았다가 72명(5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 대상이 있는 것으로는 동네 또래가 33명(24.6%)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형제, 자매로 각각 17명(12.7%), 10명(7.5%)으로 나타났다. 면접자들의 반응에서도 “주로 바깥에 나가 지들끼리 놀았주, 부모는 바깥 챙겨 줘시냐.3)” (북-32)4), “동네에 돌아 다니명 그냥 동네 아이들 이영 어울려 놀아주.5)” (남-22), “특별히 나이에 맞게 노는 것이 아니고 언니, 오빠, 형들이 놀민 동생들은 따라 다니명 구경했주.6)” (서-7)라고 응답했다.

위 답변에서 보면 제주도 전통사회는 농경 사회로서 1인 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형제 자매가 한국 전통사회에 비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자기 정체성과 독립성은 물론 경제적 자립이 기반이 되는 근면성이 놀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이는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다” 는 말도 있듯이 나이 터울이 많지 않은 형제끼리가 모여 놀이 대상이 되었고, 위 형들을 따라다니며 동생은 많은 것을 배웠고, 형들은 동생들의 보호자가 되기도 했다. 가장 낮게 나타난 놀이

3) 주로 실외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았다. 부모는 바빠서 챙겨주지 못했다.

4) 혼인전 거주지에 따라 일련번호를 병기한 것으로, 피면접자에 대한 임의적 표기이다.

5)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6) 특별히 나이에 맞게 노는 것은 아니고 언니, 오빠, 형들이 놀면 동생들은 따라다니며 구경하면서 놀았다.

대상이 가족은 2명(1.5%)으로, 아침에 일찍 밭에 나가서 해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부모와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놀이 할 시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와 차이점으로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면서 어머니 역할이 경제적인 면을 크게 좌우하여 유아와 놀아 줄 시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놀이는 유아기에서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교육인 놀이는 한국 전통사회와 거의 유사하며 자발적 학습처럼 이루어 졌고, 저절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가르치게 되고, 배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놀이 방법의 유형

한국 전통사회 유아기 놀이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으로 끝나거나 또래끼리 어울리는 골목유치원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놀이에 장난감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민첩한 신체활동이 동반되었으며, 언어에 의한 동화, 동요, 수수께끼 등이 아동 놀이로 등장하며 다양한 놀이방법 유형이 나타났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유아들이 했던 놀이 방법의 유형은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피면접자의 다중응답 분석결과는 놀이 도구가 없는 놀이 형태와, 놀이 도구가 있는 놀이 형태로 크게 상상놀이, 규칙놀이, 집단놀이, 자연·관찰놀이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 <표IV-3>과 같다.

<표IV-3> 놀이 방법의 유형

구분	놀이유형	놀이방법	사례수	백분율
놀이 도구가 없는 놀이	상징놀이	물탈락	6	2.4
	규칙놀이	흔다리 인다리	1	0.4
	집단놀이	술래잡기	4	1.6
		숨바꼭질	14	5.5
		달리기	1	0.4
	자연·관찰놀이	고구마·수박 서리	1	0.4
흙 놀이		19	7.5	
물놀이		1	0.4	
놀이 도구가 있는 놀이	상징놀이	병정놀이	1	0.4
		소꿉놀이	20	7.9
		총 싸움	5	2.0
		뚜렷놀이	1	0.4
	규칙놀이	고무줄놀이	26	10.3
		자치기	16	6.3
		줄넘기	11	4.3
		막대치기	1	0.4
		웃놀이	2	0.8
	집단놀이	제기차기	4	1.6
		구슬치기	8	3.1
		딱지치기	12	4.7
		팽이치기	10	4.0
공 놀이		5	2.0	
연날리기		10	4.0	
땅따먹기		11	4.3	
썰매타기		1	0.4	
자연·관찰놀이	곤각시	4	1.6	
	공기놀이	35	13.8	
	돌 장난	8	3.1	
	실뜨기	4	1.6	
기타			11	3.4
계			253	100.0

위의 <표IV-3>에서 알 수 있듯이 놀이 도구가 없는 놀이 유형 중 상징 놀이로 물탈락, 규칙놀이로 흔다리인다리, 집단놀이로 술래잡기, 숨바꼭질, 달

리기, 자연·관찰놀이로 고구마 수박 서리, 흙 놀이, 물놀이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관찰 중 흙 놀이가 19명(7.5%)으로 집단놀이인 숨박꼭질이 14명(5.5%)으로 가장 많이 즐겼던 놀이 유형으로 나타났다.

놀이 도구가 있는 놀이 유형 중 상징 놀이로 병정놀이, 소꿉놀이, 총싸움, 뚜렘놀이가 규칙놀이로 고무줄놀이, 자치기, 줄넘기, 막대 치기, 옷놀이가 집단놀이로 제기차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공놀이, 연날리기, 땅따먹기, 썰매타기가 자연·관찰 놀이로 곤각시, 공기놀이, 돌 장난, 실뜨기의 놀이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관찰 놀이 중 공기놀이가 35명(13.8%)으로 가장 많이 즐겼던 놀이로 그 다음이 규칙놀이 중 고무줄 놀이가 26명(10.3%)으로 그 다음이 상징놀이 중 소꿉놀이가 20명(7.9%)으로 집단놀이 중 딱지치기가 12명(4.7%)으로 높게 나타났고, 썰매타기와 막대 치기 뚜렘놀이 등이 낮은 놀이 유형으로 나타났다. 면접자들의 반응에서도 “돌맹이 등을 가지고 공기놀이, 방칠락 놀이했고, 고무줄 놀이도 했주<sup>7)</sup>” (북-15), “우리는 방치기 하면서 놀고, 제기차기도 헨. 또 고무줄이영 공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 명 놀았지, 노는게 재미있긴 한데 어머은 일만 시켰주<sup>8)</sup>” (남-43), “유아시절 놀이는 거의 없었고 어머니가 일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흥내내는게 놀이의 전부였으며 조금 자라서는 실뜨기, 공기놀이를 했다.” (제-13)이라고 응답했다.

이상의 응답 결과에서 볼 때 놀이 도구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놀이를 즐겼으며, 놀이 도구가 있는 놀이는 집단놀이를 즐겼음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 유아놀이와 마찬가지로 놀이 유형이 매우 풍요롭고 다채로워 놀이 문화의 창조라고 지적 될 만큼 많은 놀이가 나타났다고 하겠다.

7) 돌맹이를 가지고 공기놀이, 돌을 밀고 방을 만드는 방치기 놀이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했다.

8) 우리는 방치기(한발로 돌을 밀리며 나가는 게임) 하면서 놀고, 제기차기도 하고, 고무줄과 공기도 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놀았다. 노는 것은 재미있었는데 엄마는 일만 시켰다.

### 3) 놀이감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유아기까지의 놀이에 거의 장난감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물을 이용하고 장난감, 즉 놀이도구가 사용되다가 점차 단순한 놀이도구,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한 놀이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발적 학습단계 초기에는 아직도 놀이감이 전혀 없는 유아놀이가 발견되었다.

이 시기의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유아들의 놀이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노인 면접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놀이감이 나타났다. 먼저 풀, 돌맹이, 흙, 모래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한 것과 딱지, 팽이, 영, 제기 윷, 실, 줄넘기와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직접 만들어 썼던 것 그리고 구슬, 고무줄, 공과 같이 구입하여 썼던 것 등으로 질문에 대해 응답한 피면접자의 다중응답 분석결과는 다음 <표IV-4>와 같다.

<표IV-4> 놀이감의 유형

구분	놀이감	사례수	백분율
자연물을 이용하여	풀	9	5.2
	공기	27	15.6
	돌맹이	15	8.7
	흙	20	11.5
	모래	4	2.3
쉽게 구하여 제작해서	딱지	12	6.9
	줄넘기	11	6.4
	팽이	10	5.8
	연	10	5.8
	실	4	2.3
	제기	4	2.3
	옷	2	1.2
구입해서	구슬	7	4.1
	고무줄	26	15.0
	공	5	2.9
기타		7	4.0
계		173	100.0

위의 <표IV-4>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이감으로 사용한 것이 전체 75명(43.3%)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그 다음이 쉽게 구하여 제작해서 사용한 놀이감이 53명(30.7%)으로, 구입해서 사용한 놀이감이 45명(26.0%)으로 나타났다. 면접자의 반응에서도 “집 앞 공터나 골목에서 모래, 흙, 풀잎 등을 따명 소꿉놀이 허곡, 벽돌을 돌로 쪼개어 갈아서 고춧가루 양념하고 놀았주<sup>9)</sup>” (북-13), “흙으로 밥을 지었고, 구제기 껌질에 흙 담양 밥 끓인텐 허명 놀곡 했주<sup>10)</sup>” (서-38), “노는 거 이서. 노는 거명말명 밭에 가민 흙장난, 돌 장난 허명 밭에서 놀곡 동생 보는거가 노는 거였주<sup>11)</sup>” (서-9) 등으로 나타나 제주도 전통사회에는 놀이감이 귀했고, 농경사회였던 생활 특

9) 집 앞 공터나 골목에서 모래, 흙, 풀잎 등을 따서 소꿉놀이도 하고, 벽돌을 쪼개어 갈아서 고춧가루 양념 만들면서 놀았다.  
 10) 흙으로 밥을 지었고 소라껍질에 흙담아 밥 끓이면서 놀았다.  
 11) 노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가서 흙장난 돌 장난 하면서 밭에서 놀았고, 동생 보는 것이 노는 것이었다.



성에 따라 밭이나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놀이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쉽게 구하여 제작한 놀이감으로 딱지와 줄넘기, 팽이, 연 그리고 구입하여 썼던 놀이감으로 고무줄이 유아기에 많이 사용했던 놀이감이었음이 나타났다. 특히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는 자연물을 보고 느끼며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였고, 놀이 규칙이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즐기기 위한 놀이로서 다소 유희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 유아 놀이감과 유사한 상황으로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가 점점 발달되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유아나 성인들이 놀이감을 만들어 주다가, 점차 생활이 발달하면서 직접 구입하여 썼던 장난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유아 놀이감과 생활상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2.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기본생활습관지도

유아기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기본생활습관은 주위 환경에 적응해 가는 일정한 생활 행동의 반복으로 형성되는데, 한번 습관화된 행동은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그 기본생활습관의 틀은 유아의 성장을 주도하는 인격형성의 바탕이 된다.

유아의 성장에는 일정한 발달단계가 있으며, 각 발달단계에서는 유아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생활 행동들이 있다. 유아는 제각기 그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생활 행동을 배워야 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제주도교육청, 1992).

한번 잘못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을 고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유아기에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평생을 두고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적절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에서 기본생활습관지도에 식사와 수면

에 관한 내용이 유아기에 형성할 수 있는 기본 덕목으로 보아 면접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식사지도

### (1) 지도자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식사 후 어른들은 자기 몫의 밥을 한 숟가락씩 남겨 손 자녀에게 먹임으로써 그 아이의 장수를 기원했다는 말이 있다. 밥숟가락, 밥그릇의 수가 곧 수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면을 한 숟가락씩 떼어 단명하자는 손 자녀에게 보태어 줌으로써 그의 장수를 비는 행위를 했다는 말로 보아 지도한 사람은 조부, 조모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기본생활습관 식사 지도는 주로 누가 하였는가?’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피면접자의 반응 결과는 다음 <표IV-5>와 같다.

<표IV-5> 식사 지도자

구분	사례수	백분율
할머니	8	6.0
아버지	6	4.5
어머니	33	24.6
조부모	2	1.5
부모	6	4.5
형제·자매	4	3.0
가족 모두	2	1.5
특정대상이 없었음	73	54.4
계	134	100.0

위 <표IV-5>에서 알 수 있듯이 식사 지도는 특정대상이 없었음이 73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지도한 경우 어머니가 33명(24.6%)으로 많았고, 할머니 8명(6.0%), 아버지와 부모가 6명(4.5%)으로, 주로 어머니에게서 지도 받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결혼을 하면 분가하는 가족형태가 많아서 한국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식사 지도자로 조부·조모 보다 함께 거주하는 가장 어른인 부모 중 어머니가 많이 나타난 것은 어머니와 갖는 시간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2) 지도 내용

한국 전통사회 유아 식사습관 예절은, 좋은 습관으로서 강조된 자조기능의 하나였고 예절까지는 요구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유아는 가끔 성차에 따라 식사상이 달라질 수 있었다. 남아는 조부나 부친, 기타 성인 남성 가족과 겸상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좋은 식사습관훈련을 받기도 했다. 오른손을 사용하여 식사를 할 것이며, 어른들이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한 다음이어야 식사하는 버릇, 흘리거나, 흘뜨리거나, 편식하는 등의 지극히 초보적인 식사습관이 바람직하게 습관화 되도록 간섭받았다.

이러한 습관은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 나아가 사회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타 성씨들과의 사교에서 자기성씨와 문중의 품위와 체모를 손상시키지 않는 교양교육의 기초로서 요구된 것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식사습관은 식사 예절로서 요구되면서 엄격해지기 시작하였다(유안진, 1990).

이 시기의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특별한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 혼자 스스로 터득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한국 전통사회 식사예절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식사 지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피면자의 반응 결과는 다음 <표IV-6>과 같다.

<표IV-6> 식사 지도내용

지 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끼니때마다 혼자서 떠먹게 했다.	13	9.7
조용히, 바르게 앉아서 먹도록 지도했다.	7	5.2
기도하고 골고루 먹게 했다.	4	3.0
수저 먼저 놓지 않고 깨끗이 먹게 했다.	8	6.0
큰 아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했다.	23	17.2
수저의 정확한 사용을 지도하였다.	14	10.4
특별한 지도는 없었다.	50	37.3
식사 도중 다리 떨지 못하게 했다.	2	1.5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게 했다.	10	7.5
식사 도중 용변을 보지 못하게 했다.	1	0.7
반찬 뒤적이지 않게 했다.	2	1.5
계	134	100.0

위의 <표IV-6>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히 지도를 안 했다는 응답이 50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큰 아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익혔다는 응답이 23명(17.2%)으로 그 다음 많았으며, 수저의 정확한 사용을 지도했다가 14명(10.4%), 끼니때마다 혼자서 떠먹게 했다가 13명(11.9%)으로 나타났다. 면접자들의 반응에서도 “끼니때마다 가족이랑 같이 앉아서 혼자 떠먹게 했다 12).” (북-2), “밥 먹으멍 밥 그릇이영 수저를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 주13).” (남-31), “특별히 지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들 하는 것 보면서 익혔지요” (기-1)라고 응답했다.

이상의 답변으로 볼 때 한국 전통사회 기본생활습관의 식사에절은 덕목도 많고 까다로웠던 반면 제주도 전통사회의 기본생활습관의 식사에절은 가족을 보며 스스로 터득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유아로의 기본습관을 익히게 하였음이 나타났다.

12) 밥 먹을 때마다 가족들과 같이 앉아서 혼자 떠먹게 했다.

13) 밥 먹으면서 밥그릇과 수저를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다.

## 2) 수면지도

### (1) 지도자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수면습관도 유아가 연령이 7세가 가까워짐에 따라 근본적 훈육으로 강화시켜 나갔다. 조모와 잠 잘 때가 훨씬 관용적이고 자유스러워서 남아들은 나이가 들 때까지 조부 또는 부친과 사랑에서 잠자기를 거부했다고 하며, 유아의 수면지도는 조모를 비롯한 부모 및 성인가족들로 배웠다고 한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기본생활습관 수면 지도는 주로 누가 하였는가?’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피면접자의 반응결과는 다음 <표IV-7>과 같다.

<IV-7> 수면 지도자

구분	사례수	백분율
할머니	9	6.7
아버지	6	4.5
어머니	30	22.4
조부모	3	2.3
부모	7	5.2
형제·자매	4	3.0
가족 모두	2	1.5
특정대상이 없었음	73	54.4
계	134	100.0

위 <표IV-7>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생활습관 수면 지도 또한 식사지도와 마찬가지로 특정 대상이 없었음이 73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지도한 경우 어머니가 30명(22.4%)으로 많았고, 할머니 9명(6.7%), 부모가 같이 7명(5.2%), 아버지 6명(4.5%)으로, 주로 어머니에게서 지도 받았음이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전통사회가 농경사회이다 보니 어머니와 함께 밭에 가고, 함께 일 거들고 하며 하루 일과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유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가르침으로 시켰다기 보다는 어머니의 행

동, 윗 형제들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 했음을 알 수 있다.

## (2) 지도내용

한국 전통사회의 수면 습관은 식사 습관 및 예절만큼 풍요롭고 엄격하진 못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주로 조모와 함께 기거하였다. 그러다가 차츰 남아는 조부 또는 부친과 함께 사랑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으나, 자다가 달라진 잠 자리에 놀라서 잔 투정을 부리면 다시 조모의 방으로 옮겨 재우는 어리광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잠자는 습관은 남녀유아 모두에게 무의식적 본능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수록 엄격한 습관화에 신경을 썼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잠자리는 함부로 바꾸는게 아니여”,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 는 유아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잠자리를 함부로 한다든지 등 현재의 수면 습관이 크게 작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수면 지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도했는가?’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피면접자의 반응결과는 다음 <표IV-8>과 같다.

<표IV-8> 수면 지도내용

지 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	30	22.4
자장가를 부르며 재워 주었다.	3	2.3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다.	9	6.7
큰 아이나 부모를 보며 자연스럽게 익혔다.	19	14.2
같이 누워서 이야기했다.	3	2.3
특별한 지도는 없었다.	65	48.5
옷 바르게 개고 자게 하였다.	2	1.5
자기 전 용변 보게 하였다.	1	0.7
자기 전에 꼭 칫솔질하게 했다.	1	0.7
잠잘 때 혼자 자도록 했다.	1	0.7
계	134	100.0

위 <표IV-8>에서 알 수 있듯이 134명중 65명(48.5%)이 특별히 지도하지는 않았다고 응답했고, 지도한 응답 내용 중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를 30명(22.4%)이 많았으며, “큰 아이나 부모를 보며 자연스럽게 익혔다”는 응답이 19명(14.2%)이고, “할머니와 함께 자거나 부모님이 자장가를 부르거나 함께 누워 이야기하면서 잤다”는 응답이 있었다. “자기 전에 용변을 보게 하여 배변 훈련에 도움이 되게 했으며, 치아의 건강을 위해 칫솔질하게 했다”는 내용의 지도 또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도의 특이한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유아에게 자립심을 키워 주기 위해 혼자서 자게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면접자들의 반응에서도 “첫아이, 둘째 아이까지는 전기 절약차원에서 빨리 자게 해주” (북-7), “그냥 우리랑 같이 자고 일어나고 해주, 부모가 일해야 하니까 아이들도 어쩔 수 어서<sup>14)</sup>” (남-44), “어명 아방은 발에강 늦게 오민 할망이 업어서도 재우고 클 때까지 구덕에 흔들기도 허곡 할망 젓 만지멍 놀다가 자기도 해주<sup>15)</sup>” (제-9)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의 수면 지도 내용과 제주도 전통사회의 수면지도 내용은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 현 유아교육에서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내용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제주도 전통사회의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기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을 보면, 자기관리능력으로서 몇 가지의 심리처방을 알아야 했고 이와 관련된 전통사회 나름의 신앙체계를 알아야했다. 맨 먼저 이 시기의 아동은 좌우를 구별할 수 있었다. 전염병을 “얹는 집을 지나가야 할 때 왼발로 땅을 세 번 차면서, 그 집 방향에다 침을 세 번 뱉을 줄 알아야 했다.” 그것이 곧 돌림병이 자기에게 옮겨 붙지 못하

14) 그냥 부모랑 같이 자고 일어나고 했다. 부모가 일해야 하니까 아이들도 어쩔 수 없었다.

15) 엄마 아빠는 발에 가서 늦게 오면 할머니가 업어서도 재우고 클 때까지 구덕에 흔들기도 하고 할머니 젓 만지면서 놀다가 자기도 했다.

게 하는 처방이었다.

눈에 다래끼가 생기면 “길 중앙부에 작은 돌 세 개를 벌려 놓고 그 위에 돌 한 개를 얹어 지나는 이가 모르는 중에 발로 차도록 했다.” 또는 “징검 다리를 건너다가 콩이나 팥알 만한 돌멩이 하나를 떨어뜨리면서, 내 눈 다래끼 물에 빠졌다.” 고 할 줄도 알았다. 이러한 한국 전통사회의 심리처방은 아동에게는 자기 관리능력으로서, 어디서나 위험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주었다.

한국 전통사회가 금기시하는 장소, 대상 등도 분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아동으로 자랐다. 아동의 접근이 금지된 목장승과 솟대와 돌무지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당 나무·성황당 등 금줄 친 곳에는 가까이 말 것, 당집·곳집(상여를 보관하는 집)에 가까이 말 것, 버려진 제웅을 줍지 말 것, 객귀 물리친 칼이나 음식을 길에서 줍지 말 것 등의 다양한 금기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 아동의 자기관리능력을 키웠다.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기 민간 신앙을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여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했고, 삶이 빈곤했던 제주도에서는 마을마다 신당(神堂)을 마련하고, 거기에 그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堂神)을 모시는 등 각종 민간신앙적 무속이 성행하였다.

무속(巫俗)이란 심방을 둘러싼 종교민속(宗教民俗)으로, 제주도 민간에서는 이러한 민간신앙이 타 지역에 비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무속에 대한 신앙도는 생활전반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경화, 2003). 이러한 현상은 유아의 성장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는 민간 신앙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술적 처방과 심방의 역할들로부터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 1)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관습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태어나서 열 다섯 살 정도까지는 그 아이의 건강을 심리처방으로 막아보자는 바램이 담겨 있다. 유아 성장과정에서 다분히 민간



주술적인 요소를 나타냈는데, 민간 주술은 민속의학의 일부분으로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재난을 피하려는 습속이다. 이러한 주술적 습속은 제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습속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심리처방적 관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는 질문에 대한 노인면접 응답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IV-9>와 같다.

<표IV-9>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관습

구 분	심 리 처 방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에 그물 줄을 건다.</li> <li>· 머리 가마에 고기(생선) 뼈를 올려놓는다.</li> <li>· 밥 한 숟가락 가득 먹는다.</li> <li>· 설탕물 마신다.</li> </ul>
눈 다래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거리에서 돌 세 개에 그릇 깨진 것 해서 놓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서 지나가다 차버리면 다래끼가 없어진다.</li> <li>· 엄지손톱을 바늘로 십자가를 그려서 그 눈에 찔었다.</li> <li>· 걸보리로 침 놓듯이 그 눈을 콕콕 찌른다.</li> <li>· 개똥 물을 보리 짚에 적셔서 다래끼에 바른다.</li> <li>· 속눈썹을 뽑아 돌멩이 위에 얹어 놓는다.</li> <li>·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li> <li>· 참기름이나 오줌, 꿀을 바른다.</li> <li>· 그냥 놔 둔다.</li> <li>· 동네 침 할머니에게 찾아 빈다.</li> <li>· 심할 경우 침으로 찌른 후 고름을 빼낸다.</li> <li>· 화장실 돌담 하나를 바꿔 놓는다.</li> <li>· 밥을 검은 형짚에 싸서 눈 다래끼 난 위에 쭈쭈 누른다.</li> <li>· 다래끼가 난 눈 반대방향 옷에 실로 7번 감아 놓아둔다.</li> </ul>
돌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당에 의지하여 병을 고쳐달라 빈다.</li> <li>· 마늘을 갖고 다니거나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방한다.</li> </ul>
팔다리저릴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을 코에 바르고 주물러 준다.</li> </ul>
딸꾹질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장종지에 물을 넣고 젓가락 두 짝을 열 십자로 교차시켜 숨쉬지 않고 네 칸의 물을 마신다.</li> </ul>
종기 났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구마를 삶아서 소금을 버무려서 상처 부위에 붙인다.</li> </ul>
상처 났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쑥물로 바른다.</li> </ul>
몸이 간지러울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지새 풀을 말려서 태워 바른다.</li> </ul>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 돌리며 손으로 할머니가 비벼준다.</li> <li>· 혀로 꺼낸다.</li> <li>· 모유를 눈에 넣어준다.</li> <li>· 세수 대야에 물 받고 얼굴로 담근 후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li> </ul>
이를 뽑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로 잡아당긴다.</li> <li>· 뽑은 이를 지붕위로 "새 이는 돌아오고 묵은 이는 돌아오고 묵은 이는 돌아가라" 며 던진다.</li> <li>· 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입에 물어서 오랫동안 있게 한다.</li> </ul>
열병(홍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안에 눕혀서 좁쌀 물을 먹이고 사람을 금한다.</li> <li>· 바람 안 쐬우고 찬 음식 먹지 못하게 한다.</li> <li>· 초상집 다녀온 사람 못 오게 금줄을 매었 놓는다.</li> <li>· 할머니 모셔다 빈다.</li> <li>· 홍역 했을 때 썼던 물건 밖에 가서 태워버린다.</li> </ul>
배아플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문 초를 엮으로 만들어 먹는다.</li> </ul>
벌에 쏘였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의 소변을 묻힌다.</li> </ul>
채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로 찔러 피를 나게 한다.</li> </ul>
개에게 물렸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된장을 바른다.</li> </ul>
입술이 헐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에서 밥물이 흘러나오면 그 밥물을 상처에 바른다.</li> </ul>

<표IV-9>에서 보면, 눈 다래끼가 났을 때는, “천평지평 이라고 발바닥에 쓴다.” 는 처방을 쓴다는 응답과, “겉보리로 침을 놓듯이 그 눈을 꼭꼭 찌른다” 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한국 전통사회의 눈에 다래끼가 생기면 “길 중앙부에 작은 돌 세 개를 벌려 놓고 그 위에 돌 한 개를 얹어 지나는 이가 모르는 중에 발로 차도록 했다” 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 전통사회의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은 특이하면서 여러 가지의 비방이 좁은 제주지역에서도 각각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돌림병에는 “마늘을 갖고 다니거나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방한다” 는 응답을,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는 “혀로 꺼낸다” 가, 이를 뽑았을 때는 “뽑은 이를 지붕위로 던지며 새 이는 돌아오고 묶은 이는 돌아오고 묶은 이는 돌아가라” 고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IV-9> 에 나타난 응답들은 유아에게 직접 가해지는 처치들도 오늘날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종의 위안적 성격을 지닌 것들로, 이러한 심리처방 자체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심리처방으로 유아들이 병을 고치고 빨리 낫았다고 믿었고, 병원이나 약을 대신하여 유아들의 건강을 지켰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심방의 역할 유무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심방이라 한다. 심방이란 굿 또는 이에 준하는 의례를 집행하는 자이다. 이는 심방이 신과 인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인간의 바라는 것을 신에게 전하고,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유리하게 돌려놓는 의례 행위를 하며, 굿을 해나가는 도중에 신칼, 산판, 쌀 등을 이용하여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아내며, 굿을 하는 도중, 심방은 그때그때 점을 쳐서 신령의 뜻을 제주에게 전하는데, 이 때, 심방은 신령을 빙의해서 그 신령의 말을 직접 하는 것처럼 말하며, 듣는 사람은 참으로 신령의 이야기라고 믿고, 신령이 심방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제주도교육청, 1996).

심방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승할망’이 노하면 아이가 앓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무속의례로 ‘삼승할망의 본풀이’를 행하기도 하였고(제주도, 1993), 아기 행사시에도 삼신상 혹은 할망상을 차려 빌어줌으로써 초월적 존재에게 의존하여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으며,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거나 넘어져서 놀랐을 때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잠을 잘 자지 않거나 아플 때, 할망당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빌어주었다. 특히 심방에게 기대했던 주요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심방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흔히 육체에서 이탈함으로써 일어나는 병, 신령이 노여워하여 내린 병, 악귀가 접하여 일어난 병, 정해진 명이 다 되어 일어난 병 등이었으며, 그 치료 방법은 굿을 통한 초자연적 방법이었고 침구나 투약 등의 치료는 하지 않았다. 의약의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전통사회에서 유아의 각종 질병은 사망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협적인 요인으로서, 이러한 질병은 삼승할망의 분노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심방과 굿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이경화, 2003).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유아 키우기와 관련하여 심방의 역할 유무는 어떠하였는가?” 에 대해 응답한 피면접자의 반응 결과를 보면, 면접에 참여한 노인 134명중 95명(70.9%)이 아이를 키우면서 심방의 도움을 빌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면접자의 반응에서도 “아기가 아팠을 때 구덕을 흔들면서 신에게 기도하듯이 입담을 하므로 아기가 건강하도록 심방을 대상으로 기원함<sup>16)</sup>” (북-4), “애기가 저들거나, 설사하거나, 뉘 나가거나, 아프거나 하문 심방한테 간다<sup>17)</sup>.” 심방에게 “쌀이나 돈을 가정간다. 침 맞는 것 보다 심방이 기가 더 썰었주<sup>18)</sup>.” (남-16),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심하게 넘어지거나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는 심방에게 찾아 갔주.” (제-13)라고 응답

16) 아기가 아팠을 때 구덕을 흔들면서 신에게 기도하듯이 “우리아기 좋게 해주십시오. 감기, 돌림병 우리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병풍자리 좋은 집도 많은데 그런 집으로 가주십시오. 우리 집은 여러 가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좋지 않습니다. 좋은 냄새나는 집으로 가십시오.” 하는 입담임.  
 17) 아기가 편안하지 못하거나, 설사하거나, 깜짝 깜짝 놀라거나 이유 없이 아프거나 하면 심방에게 간다.  
 18) 쌀이나 돈을 갖고 간다. 침 맞는 것 보다 심방에게 데리고 가야 잘 낳았다.

하였다.

심방의 필요 없었다고 했던 면접자들도 “심방은 안 빌어봐. 심방은 낫 나가면 비는 건데 모두 건강했주<sup>19)</sup>.” (남-40), “안 빌어. 아이들이 건강했게, 침 맞힌 거가 다라<sup>20)</sup>.” (남-44), “죽을 만큼 아이가 아프진 않았어, 잔병 있으면 침 맞추면 되수다<sup>21)</sup>.” (기-6)등으로 응답해, 유아 과정에서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 심방의 힘을 비는 것이 일반적 습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속으로 심방의 역할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심방이 집행하는 곳을 통하여 그들을 수호해 주는 신 또는 죽은 조상들과 신명을 통하여 삶을 재충전하고, 삶의 토대를 강화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심방은 유아가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믿음을 준 유아의 심리적 조력자로 해석될 수 있다.

---

19) 심방에게 빌지는 않았다. 낫 나가면 비는 것인데 아이 모두 건강했다.

20) 안 빌었다. 아이들이 건강했다. 침 맞힌 것이 전부이다.

21) 아주 많이 아프진 않았다.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침을 놓았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전통유아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발굴하여 이를 놀이, 기본생활습관지도,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얻는 것으로,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과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의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대상 면접의 현지조사를 일차적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 관련 문헌조사를 보완적으로 병행하고 실시하여 분석·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놀이의 분석에서 놀이 대상을 보면 특정대상이 없이 놀았다가 53.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 대상이 있는 것으로는 동네 또래가 24.6%로 나타나면서 바쁜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 원활히 했던 것으로 적극적이며 자립심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놀이 방법의 유형을 보면, 놀이 도구가 없는 놀이 유형과 놀이 도구가 있는 놀이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놀이 도구가 없는 놀이 중 자연관찰놀이인 흙 놀이가, 집단놀이인 슝박꼭질 놀이가 가장 많이 했던 놀이로, 놀이도구가 있는 놀이는 상상놀이인 소꿉놀이가, 규칙놀이인 고무줄 놀이가, 집단놀이인 딱지치기가, 자연·관찰놀이인 공기놀이가 각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놀이감에서는 풀, 공기, 돌맹이, 흙, 모래 등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감이 전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딱지, 줄넘기, 팽이, 연, 실, 제기, 옷 등 쉽게 구하여 제작해서 만든 놀이감이 30.7%, 구입하여 사용한 놀이감이 26.0%로 나타나면서 자연 속에서 놀이감을 찾아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기본생활습관지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식사 지도자는 특정 대상이 없었음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24.6%로 지도한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식사지도 내용은 “특별한 지도는 없었다.”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큰 아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했다.”는 응답이 17.2%로, “수저의 정확한 사용을 지도했다.”는 응답이 10.4%, “끼니때마다 가족이랑 같이 앉아서 혼자 떠먹었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났다. 그밖에 응답으로는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게 했다.”, “수저를 먼저 놓지 않고 깨끗이 먹게 했다.”, “조용히 바르게 앉아서 먹게 했다.”, “기도하고 골고루 먹게 했다.”, “다리 떨지 못하게 했다.”, “반찬 뒤적이지 않게 했다.”, “식사 도중 용변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응답했다.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기본생활습관 수면 지도자는 특정대상이 없었음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가 22.4%로 지도한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할머니, 아버지, 부모 함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모두 차례로 나타났다.

수면 지도 내용을 보면 “특별한 지도는 없었다”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가 22.4%로 지도 내용에서 높게 나타났다. “큰 아이나 부모를 보며 자연스럽게 익혔다”는 응답도 많았으며, “할머니와 함께 자거나 부모님이 자장가를 부르거나 함께 누워 이야기하면서 잤다.”는 응답이 있었다. “자기 전에 용변을 보게 하여 배변 훈련에 도움이 되게 했으며, 치아의 건강을 위해 칫솔질하게 했다.”는 내용의 지도 또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역할이 유아기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가족 모두의 생활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기본생활습관지도 교육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세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에서는 눈 다래끼가 났을 때는 “천평지평 이라고 발바닥에 쓴다.”는 처방과 “겉보리로 침을 놓듯이 그 눈을 똑꼭 찌른다.”는 처방을, 돌림병에는 “마늘을 갖고 다니거나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방한다.” 가,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는 “혀로 꺼낸다.” 가, 이를 뽑았을 때는 “뺨은 이를 지붕위로 던지며 새 이는 돌아오고 뭍은 이는 돌아오고 뭍은 이는 돌아가라.” 고 했다는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은 신앙을 믿고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났다.

이런 응답들은 유아에게 직접 가해지는 처치들도 오늘날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종의 위안 적 성격을 지닌 것들로, 이러한 심리처방 자체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처방으로 유아들이 병을 고치고 빨리 낳았다고 믿었고, 병원이나 약을 대신하여 유아들의 건강을 지켰다고 믿고 있었다.

심방의 역할을 활용하고 믿었다가 70.9%로 나타나 무속으로 심방의 역할이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이 보였다.

## 2.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내용을 놀이, 기본생활 습관,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으로 나누어 한국 전통사회와 비교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 놀이는 제주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자립지향적 문화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조부·조모가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하면서 놀이 교사이자, 심리치료사의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조모의 역할을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제주도 전통가족의 분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대외적 활동에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남성들이 유아를 돌보는 것이 타지역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었으며 아이 어린 손윗형제나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동생을 돌봄으로써, 가족전체가 유아교육에 참여하였고, 유아 스스로도 제주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가족과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자립지향적 문화였음을 알 수 있



다.

둘째,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는 특별히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보며 스스로 터득하는 독립적인 유아로서 가족의 일원인 공동체 지향적 문화이다.

한국 전통사회 유아교육에서는 기본생활습관 훈련 형성의 유·무와 부모에 대한 불효를 결합시켜 지나친 관심과 책임의식을 보였고, 조부 조모가 대리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대개 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고 자립적 생활의지가 중요시되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기본생활습관지도에 그다지 엄격한 제한은 찾기 힘들었으며, 스스로 터득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차이를 보였고,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인 분가 주의로 인해 조부 조모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이는 제주도 전통사회에서의 기본생활습관지도는 특별히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보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독립적인 유아로서 가족의 일원인 공동체 지향적 문화임을 말해 주고 있다.

셋째,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유아를 키우면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과 척박한 삶의 공간에 대한 극복을 초월적 존재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고자 했던 제주인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심리처방적 문화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은 유아에게 자기관리능력으로서, 어디서나 위험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금기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추게 하여 자기관리능력에만 큰 비중을 둔 반면, 바람이 잦고 비가 많은 기후조건 속에서 농업과 어로생활이 생업이었던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해 주는 의례를 행사하였고 제주도 어머니들의 심리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즉 민간신앙적 요소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월적 힘의 매개자로서 삼승할망, 녀들이 할망, 심방 등에 의존하였고, 자립적 극복의지로서의 주술적 처방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키우면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과 척박한 삶의 공간에 대한 극복을 초월적 존재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고자 했던 제주인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민간신앙적 심리처방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중 놀이 및 기본생활습관, 심리처방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국내 타 지역의 유아교육과 비교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도 지역 내에서도 중산간과 해촌간 기후 및 생활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지역내 비교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전통 유아교육에 대한 특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여성 노인의 면접을 통해 실천적 유아교육 방식을 조사한 바, 설화나 민담, 속담 등의 구비전승 문화 속에 나타나 있는 유아교육 방식에 대한 문헌고찰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을 현대적 유아교육 상황에 어떻게 계승시켜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실천적 적용 방안이 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재환(2001). **제주 속담 총론**. 서울: 민속원.
- 고재환(2002). **제주 속담 사전**. 서울: 민속원.
- 교육부(1998).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 지도자료**. 서울: 선명인쇄  
주식회사.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울: 통천문화사.
- 권석환(1996). 호행설화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업(1986). **탐라문화사**. 제주: 조약돌.
- 김종천(1982). 무속에 나타난 제주도민의 생활의식 -무속신화 본풀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혜숙(1998).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해영(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과의 관계. 숙명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대구: 중문출판사.
- 문재희(1987). 제주도의 육아속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명숙(1999). 유아의 가정환경 변인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인제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형(1998). 제주전래동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1991).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지도의 실제**. 서울: 서울특  
별시.
- 신행철(1995).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양창선(2000). 제주 전통문화의 전승교육 실태와 지도 방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1995). 전통사회의 아동교육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경화(2003). 제주지역 전통 육아문화에 대한 비교연구(I). **열린유아교육연구, 제8권 2호**.
- \_\_\_\_\_ (2003). 제주도 전통 산속의 이해. **비교민속학연구, 제25집**.
- 이민아(1999).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아동언어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1995). 한국 전통사회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대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임동권(1984). **한국민속학 논고**. 서울: 집문당.
- 임재해(1986). **민속문화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제주도(1982). **제주도의 문화유산**. 제주:제주도청.
-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1)**. 제주: 아라출판.
- 제주도(2000). **제주 민요의 이해**. 제주: 제주도 인쇄정보 산업협동조합.
-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제주도교육청(1992). **기본생활습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자료**. 제주: 흥익출판사.
- 제주문화사(1998). **제주여인상**. 제주: 제주문화사.
- 제주시(1988). **제주시 30년 사**. 제주: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제주발전 연구원(1997). **21세기 제주 제주인**. 제주: 제주 발전 연구원.
- 진성기(1993). **제주도 무속론고**. 제주: 제주민속연구소.
- 진성기(1996). **남국의 민속놀이**. 서울: 흥인문화사.
- 조혜정(1982). **제주 해녀사회 연구**. 서울: 심설당.
- 좌혜경(1993). **제주전승동요**. 서울: 집문당.

- 하수연(1999). 한국 전통 태교의 금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영(2000).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서울: 영락출판사.
- 현용준(1996). **제주도 신화**. 서울: 서문당.
- 현용준(1996). **제주도 전설**. 서울: 서문당.
- 현용준(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 현평호(1985). **제주도방언 연구**. 서울: 삼우출판사.
- 홍순례(1999). 호남 지방 산속의 유형과 의미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록

###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고찰

안녕하십니까?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미혜입니다. 먼저, 서면으로 인사하게 됨을 사과 드리며, 더불어 교육의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은 연구자료의 수집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유아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특성이 문헌자료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육지부와는 다른 제주 고유의 유아문화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고찰”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전통사회의 유아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다고 판단되는 만 60세 이상(면접일 기준)의 노인들로부터 원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가치로운 일이며, 이러한 일차자료 수집은 본 연구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 유아교육에 대해 이해도 깊고, 일반 면접 원에 비해 주변 어르신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원활한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집해주시는 이 자료가 우리지역의 전통사회 유아문화를 전승하는데 매우 귀중하게 쓰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이 경 화

연구자 : 문 미 혜

##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에 대한 면접지

### ◎ 일반사항

면접자 성명		성별		교직경력		연령	만	세
소속 유치원	주소) 전화)							
면접일자	200년 월 일 (시 분~시 분)	면접장소			피면접자와의 관계			

### ◎ 면접지침

1. 피면접자는 현재 만60세 이상(혹은 1942년 이전 출생자)의 제주도에서 출생한 분으로, 전통사회에서 양육되었거나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으로 육아에 직접 참여한 노인입니다.
2. 면접장소 및 시간은 피면접자(노인)나 면접자가 편안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면접은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몇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3. 면접 시작 전에 연구내용 및 면접방식에 대해 알기 쉽게 피면접자에게 설명해주시십시오.
  - 1) 탐라대학원 문씨혜의 제주도의 옛날 유아시기 아이 키우기에 관한 연구를 위해 면접한다.
  - 2) 옛날에는 혹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3)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에 대담해 주기를 바란다 등.
4. 면접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면접과정에서는 질문은 피면접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시합니다.
6. 피면접자의 대답은 확인 후 기재하는데, 피면접자가 말하는 그대로(사투리) 옮겨 씁니다.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기가 어렵다면, 녹음하여 추후 전사하거나 주요 단어를 기록해 둔 후 면접직후에 자세히 기재합니다.
7. 제시된 질문 이외에 보충사항(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여 따로 기록해 주십시오.
8. 기록용지는 문항을 표시하여 따로 첨가할 수 있습니다.
9. 면접에 앞서 질문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주시십시오.
10. 질문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질문해주시십시오.

**▣ 다섯살-일곱살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I. 유아들은 어떤 놀이를 주로 하였습니까? 혹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이야기해주셔도 좋습니다.

▶유아는 주로 누구와 놀이했나요?

▶유아들이 했던 놀이 방법의 유형은 어떠했나요? (어떤 놀이를 했나요?)

▶유아들의 놀이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갖고 놀았나요?)

II. 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지도는 주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지도했나요? (식사와 수면지도)

▶기본생활습관의 식사 지도는 주로 누가 하였는가?



▶기본생활습관의 식사 지도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본생활습관의 수면 지도는 주로 누가 하였는가?

▶기본생활습관의 수면 지도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Ⅲ.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민간신앙적 심리처방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심리처방 적 관습, 무당)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민간신앙적 심리처방(비방)이 있으면 생각나는 데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눈 다래끼가 났을 때, 돌림병이 들 때,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이를 뽑았을 때, 딸꾹질 할 때 등)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심방의 역할 유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피면접자 인적사항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년 월 일(음, 양)	4) 학력	
5) 가족구성 (혼인전)	( )남 ( )녀 중 ( )째		
6) 혼인한시	년 월 ( )세때	7) 자녀수	( )남 ( )녀
8) 자녀연령	첫 째: 남 ( )세 여( )세    둘 째: 남 ( )세 여( )세 셋 째: 남 ( )세 여( )세    넷 째: 남 ( )세 여( )세 다섯째: 남 ( )세 여( )세    여섯째: 남 ( )세 여( )세		
9) 현재 거주지	도 시(군)	동(읍)	면 리
10) 현재 가족구성	부부거주, 일인거주, 2세대구성, 3세대이상구성, 기타( )		
11) 혼인전 거주지 (고향)	도 시(군)	동(읍)	면 리
12) 현재 생활사			

◎ 기재요령

<p>※ 인적사항은 면접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자와 피면접자와의 관계 및 면접상황에 따라서는 면접 시작 전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p> <p>4) 학력은 공식적인 학력을 기재하고, 노인대학 등의 활동은 12)번에 기재하도록 합니다.</p> <p>5) 피면접자의 혼인 전 형제자매 관계를 기재합니다.</p> <p>6) 정확한 연도를 상기하기 어려울 경우, 당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p> <p>7) 피면접자의 현 자녀수를 기재합니다.</p> <p>8) 출생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성별에 따라 당연령(면접일 기준)을 기재한다. 확한 연령을 모를 경우, 대략의 나이를 기재하고 띠를 추가 질문하여 옆에 표기해 두도록 합니다.</p> <p>10)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족형태에 표시합니다.</p> <p>11) 출생에서 유 소년기(출가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혹은 고향)을 기재합니다.</p> <p>12) 현재의 생업, 여가활동, 소속단체 등에 관해 약술합니다.</p>
---

Abstract

## A Study on Tradi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Jeju

Mi-hye Moo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amna University

Advisor: Kyeong-hwa Lee, Ed.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Jeju in conjunction with the features of its traditional society by utilizing interview method.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what types of plays were traditionally enjoyed by young children in Jeju?

Second, in which way were early childhood basic life habits were guided in Jeju?

Third, what was traditional psychotherapy based on folk belief in Jeju?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4 elder women, with whom individual semi-standardized interview was held to obtain information on early-childhood plays, basic life habits guidance, psycho-therapy based on popular belief and sorceress role associated with child rearing. The collected data were categorized by the standard of similarity, and

multiple-respons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raditional Jeju society, early childhood plays served as a vehicle to get along with others without relying on parents who were busy, and young children in that region were active and independence-minded. The type of materials that were easily accessible in nature were used as play stuffs.

Second, regarding basic life habits guidance, there was no specific efforts to teach young children about eating and sleeping. Young children naturally learned how to lead a life when they were exposed to family life.

Third, conventional folk psychotherapy depended on female shamans, who were believed to have some power. Home remedies applied to young children were rather a sort of comfort, whose effects are difficult to prove. The folk psychotherapy seemed to help them feel at ease, no matter whether it actually worked or no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reached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findings:

First, early childhood plays in conventional Jeju were part of independence-oriented culture that could help children establish amicable interpersonal relations in natural setting.

Second, there was no particular educational efforts to guide basic life habits, but young children acquired them on their own while living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this could be called a community-oriented culture.

Third, the folk psychotherapy that was widespread in Jeju was a mirror of the mentality of the residents who sought comfort in a transcendental being to survive all sorts of sufferings, hardships and overcome

disadvantageous living condition.